

산남의 중심



서귀포 시내의 중심도로인 중앙로 주변은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변화기이다. 과거 해안을 지키는 군사적 요지였던 이곳은 오늘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서귀포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로 | 서귀포시 서귀동 456-2 ~ 서귀포시 서흥동 177-2(약 2.7km)

동홍로 | 서귀포시 서귀동 255-11 ~ 서귀포시 동홍동 2146(약 5.2km)

서흥로 | 서귀포시 서흥동 532-3 ~ 서귀포시 서흥동 산25-3(약 5.2km)

숨반천로 | 서귀포시 서흥동 397-131 ~ 서귀포시 서흥동 448-10(약 0.7km)

휴담솔로 | 서귀포시 서흥동 307-3 ~ 서귀포시 서흥동 1382-2(약 1.9km)

장수로 | 서귀포시 동홍동 512-11 ~ 서귀포시 서흥동 353(약 1.2km)

토평서로11번길 | 서귀포시 토평동 2043-1 ~ 서귀포시 동홍동 807-1(약 1.6km)

중앙로 / 동홍로 / 서홍로 | 산남의 중심

중앙로는 산남의 중심인 서귀포 시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길이다. 중앙로 인근에는 서귀포시청을 비롯해, 여러 학교와 주택,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서귀포 시가지의 주요 길들은 중앙로에서 뻗어나가 시내 곳곳으로 이어진다. 과거 중앙로 주변은 서귀진이 있던 곳이다. 제주도 남쪽의 중심 해안가를 지키던 군사적 요지로 한 때는 정의현의 관청 소재지로 거론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지금은 한라산 남쪽 서귀포시의 행정 중심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로와 나란히 이어지면서 시내를 관통하는 길들이 서홍로와 동홍로이다. 두 길은 마을 안에서 산록남로까지 이어지면서 서귀포시와 중산간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귀포 시내의 일주동로 북쪽에서는 중앙로를 기준으로 서홍동과 동홍동이 나뉜다. 두 마을은 예전에 홍로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지형이 화로를 닮았다는 이유로, 또는 따뜻한 날씨에 눈이 쌓이지 않는 곳이어서라는 해석이 있지만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다.

제주의 신화 중에는 두 마을이 나뉘게 되는 유래를 설명하는 고산국과 지산국의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제주에 바람의 신 바람운(또는 바람웃또)이 있었다. 바람운은 중국으로 유람을 갔다가 어느 집에 들러 바둑을 두게 된다. 그러다 우연히 그 집 딸을 보게 되고 아름다운 미모에 첫눈에 반하고 만다. 바람운은 집주인에게 내기 바둑을 두어서 만약 자신이 이기면 이 집의 딸과 혼인을 시켜달라는 제안을 했다. 집주인의 승낙으로 내기 바둑이 시작되고 결국 바람운이 승리를 거둬 혼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바람운은 첫날 밤에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자신이 보았던 미모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알고보니 그 집에는 딸이 둘 있는데 첫째 고산국은 얼굴이 못생겼고, 둘째 지산국은 절세미녀였던 것이다. 그 후로 시름시름 앓던 바람운은 고백이나 하고 죽자는 심정으로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아내의 동생에게 고백을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생도 바람운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둘은 의기투합하여 그날로 집을 나와 제주도로 떠나버린다. 집에 돌아온 바람운의 아내는 둘이 함께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치밀어 당장에 쫓아갔다. 한라산을 돌아다니며 이리저리 그녀를 피하던 바람운과 동생은 결국 언니에게 숨어있는 곳을 들키고 말았다. 그녀는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바람운의 마음이 이미 떠났음을 알고 서로 다른 곳에 자리를 잡고 살자고 한다. 그래서 언니인 고산국은 홍리의 서쪽에, 동생인 지산국은 홍리 동쪽에, 바람운은 홍리 아랫 쪽에 각각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홍리 마을이 서홍리와 동홍리로 나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고산국의 질투 때문에 동홍동 사람이 서홍동에 가서 나무를 하면 화를 입었다고 하고, 두 마을 사람끼리는 혼인을 꺼

려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현재 이중섭미술관 옆에는 바람운을 모시던 서귀본향당이 남아있어 옛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솜반천

솜반천로 | 솜반천

서귀포시청 제1청사 인근에서 시작되어 솜반천으로 이르는 도로가 **솜반천로**다. 솜반천은 홍로마을을 지난다는 의미로 홍로천, 천지연의 바깥에 있는 내라는 뜻의 연외천으로도 불리는 하천이다. 솜반천은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이 물은 천지연폭포까지 시원하게 흘러간다. 예전에 공장의 폐수가 솜반천을 따라 천지연까지 흘러들어가 오염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솜반천의 생태를 복원하면서 걸매생태공원을 조성했다. 이 공원은 도심 속에서 나무와 숲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흙담소나무

흙담솔로 | 흙담소나무

흙담솔로는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시작해 하논오름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흙담솔로**에서는 길가에 줄지어 있는 100년이 넘는 소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이 길을 흙담소나무길이라고 부른다. 중앙로를 사이에 두고 서흥동에서 동흥동 양쪽 길에 걸쳐 늘어서 있는 흙담소나무길은 2005년에는 (사)생명의 숲이 선정한 아름다운 거리 숲 부문 우수상에, 2007년에는 산림청이 지정한 녹색건전성 평가 가로수 부문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이러한 흙담소나무의 상징성을 반영해서 흙담솔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영해서 흙담솔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이 마을에는 좋지 않은 일이 계속되었는데, 사람들은 풍수지리상 마을 앞이 트여

있어서 그런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1910년경에 기가 허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경천이라는 분의 주도로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흙담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들은 오늘날 서귀포 시내의 독특한 풍경이 되었다. 마을의 평안함을 생각한 선조들의 정성이 담겨있는 유서 깊은 나무들이다.

장수로 | 장수의섬

동홍로에서 시작되어 동홍생활체육관과 서귀고를 지나고 서홍동까지 이르는 길을 장수로라 한다. 이 길의 이름은 지역민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부여했다. 예로부터 제주에는 장수의 섬으로 알려졌다. <탐라순력도>에 보면 관에서 여는 노인잔치에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참석했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제주에는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노인성과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에 온 서복의 이야기가 전해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제주의 좋은 자연 환경이 장수하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토평서로11번길 |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동홍로의 동쪽으로 가다보면 **토평서로11번길**에서 서귀포의 전통시장인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을 만난다. 서귀포 향토오일시장은 서귀포 지역에 개설된 대표적인 오일장이다. 1974년부터 지금까지 40년에 걸쳐 이어져오고 있다. 처음 이 시장은 서홍동에 있는 솜반천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1995년 동홍동의 현재 위치에 옮겨져 매월 4일과 9일이 들어간 날이 되면 상인들이 모여들어 장을 연다. 시간이 흘러 많은 변화 속에서도 이곳은 예전의 전통을 이어나가며 전통시장으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